

# 목포 대양산단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

사업비 1137억원 2025년 준공  
국제마른김거래소 등 들어서  
수산식품 개발·상품화 등 역할



박홍률(왼쪽 세 번째) 목포시장 등이 최근 목포 대양산단에서 열린 '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대양산단에 사업비 1100억원 규모 수산식품수출단지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목포시는 최근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다.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집산지인 전남도는 그동안 수산물 가공률과 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목포에 조성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전남도 등의 지원을 받아 '해수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사업비 1137억원을 들여, 부지 2만8133㎡, 연면적 4만6612㎡(지상 4~5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36개 기업유치, 2000여 명 고용유발, 2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수산식품 상품화와 고품질 수산식품 개발을 통해 수산물 가치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소비 경향에 맞는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한다. 수산식품 가공산

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대형 가공 공장, 국제마른김거래소,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임대형 가공 공장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목포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36개소의 가공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거래 유통 효율성을 높여 국내의 구매 담당자(바이어)를 위한 마른김 거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오는 2026년 문을 열어 목포 중심의 마른김 유통을 선도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전남도의 '고차가공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예비타당성 조

사 선정·의뢰, 2019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20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과 지난해 8월 기본·실시설계 완료,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의 준비를 거쳤다. 지난 2019년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비 1089억원 규모로 시작해,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사업비가 1200억원 규모로 바뀌었다. 이후 공사 계약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거치면서 총사업비 1137억원이 확정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수산업을 목포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수산식품산업 허브(Hub) 기반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무안군, 항공기 3대 정치장 첫 등록 유치

세수 2억4000만원 확보

무안군은 진에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해 정치장으로 무안군에 첫 등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부과되며, 군은 이번 정치장 유치로 약 2억

4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에는 현재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으나 훈련용 항공기로 재산세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무안군은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해 더 많은 국제노선과 항공기가 등록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3월 전남도, 무안군과 정기선 운항 및 공항활성화 협약을 맺고 무안국제공항에서 5월부터 제주도 노선을 주 2회(목, 일), 몽골의 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수, 토) 운항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군, 가족 공감 뮤지컬 '비커밍 맘' 공연

오늘 진도향토문화회관

진도군이 5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가족 공감 뮤지컬 '해피 패밀리 비커밍 맘' 공연을 개최한다. 진도군은 공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부들의 현실감각 이야기를 통한 결혼생활 도움말(꿀팁)을 전수하는 재미있는 공연 관람으로 행복에너지 제

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민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육아가 안겨주는 행복을 널리 알려 저출산에 대응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도초도 수국공원에 수국이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 도초도 20~30일 '섬 수국축제'

100만 그루 꽃망을 수국정원서

신안군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섬 수국축제는 도초도 여객선이 닿는 화도에서 시작하는 뽕나무 10리 숲길을 지나 이르는 수국정원에서 펼쳐진다. 수국정원에는 50여 종의 수국 100만 그루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축제 기간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수국축제 기간 성인 6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5000원은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파란색 옷을 입고 오는 방문객은 입장료 3000

원을 받고 전액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축제 기간 문순득 국제페스티벌, 안해경 작가의 수국화 전시회, 환상의 정원 탐방을 위한 전통차 운행, 수국 포토존, 향토음식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신안군 남강선착장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축제장에 방문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에는 날씨가 좋아서 수국이 지난해보다 더욱 아름답게 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마음껏 관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 군곡리는 고대 항구? ...패총서 '배모양 토제품' 출토

중~한반도~일 국제무역항 증거  
청동기·철기시대 패각층도 확인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출토유물. 배모양 토제품과 아궁이 모양 토제품. <해남군 제공>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패총에서 배모양 토제품과 아궁이 모양이 출토돼 고고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국가유산(사적) 군곡리 패총에 대한 9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굴에서는 구릉 동쪽 경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청동기-철기-삼국시대 층이 순차적으로 이루고 있는 패각층을 확인했다. 철기시대 지층에서는 아궁이와 배모양 토제품이 출토됐다. 배모양 토제품은 길이 9.3cm, 너비 3.4cm, 높이 2.7cm로 전통배의 구조를 본떠서 만들었다. 평편한 바닥에 선수와 선미가 쉽게 구별되는 형태로 토제품 안쪽에 노끈이와 돛 등이 설치하

구조와 형태로 보아 실제로 사용했다기보다 당시 고대인들의 부무막에 대한 신앙적인 의례 용품으로 해석된다. 토제품의 경우 실물을 본떠 만든다는 점에서 당시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배모양 토제품이 출토되면서 군곡리 일원이 당시 항구도시일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린다. 유적 주변에 접안시설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발굴조사를 맡고 있는 김건수 목포대학교 박물관장은 "해남 군곡리 패총의 구릉 정상부는 광장과 의례 공간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생활 모습이 갖추어진 곳으로 매우 복합적인 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오랫동안 형성된 패총의 흔적을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생활중심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